

# 영국 갈리폴리 원정작전(1915년)의 패인(敗因) 고찰\*

- 영국군 수뇌부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터키군의  
실상(實狀)을 중심으로 -

이 내 주\*\*

1. 들어가는 말
2. 영국군 원정의 배경과 작전 경과
3. 영국군 수뇌부의 식민지 경험과 그 영향
4. 오스만 터키군의 실상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접어들어 군사사 연구에서 중요한 경향들 중 하나는 연구 주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일 것이다.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38).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이러한 접근법은 전쟁을 합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정치적 행위로 보는 클라우제비츠 부류의 전통적 관점으로부터의 탈피를 전제로 하고 있다. 키건(John Keegan)은 전쟁이란 정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해당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꼽고 있다.<sup>1)</sup> 물론 문화는 정의하기도 쉽지 않고 설명력도 미흡한 분석 개념이지만, 군사사 연구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간적으로 서양의 경계를 넘어서 비서양세계의 군사적 발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서양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비교사적 접근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블랙(Jeremy Black)을 꼽을 수 있다.<sup>2)</sup> 그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통해 전 지구적 관점에서 군사사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 이의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이 향후 군사사 연구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다양성을 저해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로 서양세계 연구자들의 비(非)서양세계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들고 있다. 흔히 서양이 유럽의 팽창이 이루어진 시기 이후로 비서양세계를 군사적으로 압도해 왔다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라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베트남전쟁이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전쟁의 실패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월한 무기 및 무기체계가 언제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전쟁을 문화권 간의 충돌로 파악하려는 연구경향에 잘 어울리는 전투들 중 하나로 제1차 세계대전 중 기독교 문화권의 영국군과 이슬람 문화권의 오스만 터키군이 충돌한 갈리폴리 전투(Gallipoli Campaign,

1) John Keegan, *A History of Warfare*(New York: Knopf, 1993), p.12.

2) 다작(多作)의 역사가인 블랙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권의 저서를 남기고 있다: J. Black, *Rethinking Military History*(Routledge, 2004); *Introduction to Global Military History, 1775 to the Present Day*(Routledge, 2005); J. Black, S. Morillo, and P. Lococo, *War in World History: Society, Technology, and War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vols.1-2* (NY: McGraw Hill, 2008); *War and the Cultural Turn*(Cambridge: Polity, 2012).

1915년)를 꼽을 수 있다. 1914년 말에 이르러 서부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영국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오스만 터키의 지중해 동부 갈리폴리 반도와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이었다. 서부전선에 대한 동맹 진영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우방국 러시아와의 직접적 접근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 작전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하지만 사전 준비도 미흡한 채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탓에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엄청난 수의 전상자(戰傷者)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sup>3)</sup>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당한 가장 치욕적인 패배로 기억되고 있다. 19세기 중엽 이래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주 침탈 대상으로 여겨져 온 오스만 터키에 당한 패배인지라 그 충격과 굴욕감은 더욱 컸다.

갈리폴리 전투의 촉발 요인은 1915년 1월 초 러시아 황제가 영국정부에 보낸 한 통의 서한이었다.<sup>4)</sup> 자국을 위협하고 있는 오스만 터키군을 배후에서 견제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키치너(Horatio Herbert Kitchener, 1850~1916)와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 등 영국군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흑해 접근로인 다르다넬스 해협과 궁극적으로는 이스탄불(옛 지명: 콘스탄티노플) 점령이라는 목표를 갖고서 서둘러 작전을 추진했다. 1915년 2월~3월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터키군이 다르다넬스 해협에 부설해 놓은 기뢰를 제거하고 이어서 해협 주변에 구축된 해안포대를 향해 함포사격을 가하면서 전투가 개시됐다. 하지만 3월 중순경에 원정군 전함 3척이 터키군의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작전의 양상은 해군 단독작전에서 지상군 상륙작전으로 확대됐다.<sup>5)</sup> 마침내 1915년 4월 말에 영국

3) 공식기록에 따르면 갈리폴리 작전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한 인원은 두 진영을 합할 경우 무려 50만 명에 달했다: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 20만 5천 명, 프랑스군 4만 7천 명, 그리고 터키군 25만 1천 명(Tim Travers, *Gallipoli 1915*, Stroud, 2004, p.311)

4) *ibid.*, p.19.

5) *ibid.*, p.19.

지중해원정군(Mediterranean Expeditionary Force, MEF)이 사령관 해밀턴(Ian Hamilton, 1853~1947) 장군의 지휘 하에 갈리폴리 반도 입구에 상륙했다.<sup>6)</sup>

그러나 상륙작전은 터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간신히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후 원정군은 좁은 해안가에서 웅거한 채 수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만 했다. 1915년 8월 초에 교착상태를 타개할 목적으로 갈리폴리 반도 좌안에게해 방면의 협소한 안작만(Anzac Cove)<sup>7)</sup>과 수블라만(Suvla Bay)에 약 2만 명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들 상륙부대는 케말(Mustafa Kemal, 1881~1938)이 지휘하는 터키군 제19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은 채 겨우 2마일을 전진하는데 그쳤다.<sup>8)</sup> 10월 중순 작전 부진의 책임을 물어 영국 원정군 사령관 해밀턴이 해임되고 먼로(Charles Monroe) 장군이 부임했으나 전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영국군은 철수를 결정하고 이듬해 1월 초까지 갈리폴리 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났다.<sup>9)</sup>

1916년 여름에 런던에서는 작전 실패의 원인을 조사할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됐다. 주요 관련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후 위원회는 작전 전모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발간(1917년 1권, 1918년 2권)했다. 영국정부

6) 상륙작전에는 6개 사단 총 7만 5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영국군 육군 제 29사단 및 해군 1개 사단, 나중에 일명 Anzac 부대로 불린 이집트 주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 2개 사단, 프랑스군 2개 사단). 주공격 목표는 반도 입구의 헬레스곶(Cape Helles)과 해안의 중요 5개 지점(S, V, W, X, Y로 명명)이었다.

7) 안작(Anzac)은 1914년 12월 이집트로 파병됐다가 1915년 3월말 이후 갈리폴리 반도에 투입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약자이다. 갈리폴리 전투에 투입되어 많은 사상자를 낸(총 5만 명의 병력 중 7,600명 전사) 이들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상륙한 해안지대를 전후에 안작 만(Anzac Cove)으로 명명했다.

8) J. Murray, *Gallipoli 1915* (Cerberus, 2004), pp.6~7.

9) 1915년 12월 18~19일 안작만과 수블라만에서, 그리고 1916년 1월 8~9일에는 헬레스 곶에서 마지막 병력이 철수했다.

수뇌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전 논의, 군수물자 준비부족,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 사령관 해밀턴을 비롯한 영국군 지휘관들의 리더십 부재 등을 골자로 하는 여러 요인들이 도출됐다. 패배의 원인이 영국군 자체에 있었다는 일종의 중심부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동시에 당시 터키군의 대응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주변부에 주목한 분석 역시 제기됐다.<sup>10)</sup> 영국군의 사전 준비 미흡을 비롯기라도 하듯이 갈리폴리 전투 당시 터키군은 대전 이전부터 독일 군사고문단의 인적 지도와 물적 지원에 힘입어 상당한 수준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sup>11)</sup>

이 논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지피지기 백전불퇴’라는 말처럼 실제 전투 이전에 상대방의 전력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승패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 영국군 수뇌부 인사 및 전장(戰場) 지휘관들은 적군인 터키군의 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파악도 없이 전투에 임했는가? 그리고 대규모 원정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고 정책결정하는 핵심주체들조차 너무나 안이한 낙관주의적 자세로 대처했는가? 이들의 뇌리 속에 스며들어 있던 유럽 중심주의적인 우월감과 오만함이 암암리에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터키군을 그 실상(實狀)과는 달리 얕잡아 보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19세기 중엽 이후 본격화된 영국 제국주의 진출로 더욱 심화된 서구중심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영국군 수뇌부에 영향을 주어 터키군의 전투력을 무시하는 태도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이념적 요인의 영향 정도를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나 그렇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개연성이 농후하다.

비교사적 접근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서양세계와 비서양세계 간에 상호

10) Tim Travers, op. cit., p.14.

11)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독일군 군사고문단의 단장으로서 그리고 갈리폴리 전투 시에는 터키군 제5군 사령관으로서 오스만 터키군의 근대화 및 갈리폴리 전투 승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잔디스 장군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집필해 1920년 베를린에서 발간한 다음 책이 유용하다: Liman von Sanders, *Five Years in Turkey*(Annapolis: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27, reprinted).

작용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군사사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전쟁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이 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양 중심으로 설정된 각종 기준 및 넓게는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비서양세계와의 협업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관심을 촉발하는 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영국군 원정의 배경과 작전 경과

1914년 8월 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터키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표면적 입장일 뿐 19세기 말부터 추진된 독일의 중동지역 진출 정책의 영향으로 내심으로는 이미 독일 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전통적으로 지중해 지역에 관심이 높았던 영국은 신생통일국가 독일의 중동지역 진출 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대전발발 직전 상황은 독일 측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실제로 대전 이전부터 터키는 무엇보다도 군사면에서 잔더스(Otto Liman von Sanders, 1855~1929) 장군이 이끄는 독일 군사고문단의 지원과 지도를 받고 있었다.<sup>12)</sup> 1914년 9월 말에 터키군은 갈리폴리 반도 해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에게해에 기뢰를 설치, 다르다넬스 해협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후 터키는 독일 진영의 일원으로 제1차대전에 참전했다.<sup>13)</sup> 다르다넬스 해협 봉쇄로 인해 흑해와 지중해 간의 통항이

12) 제1차대전 이전부터 터키에서 영국과 세력 확장을 다룬던 독일은 1913년 12월 터키군의 재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잔더스 장군 휘하에 70여 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파견했다. 고조되고 있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터키정부가 군사력 증강책의 일환으로 독일에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914년 말에 이르면 터키군은 총 40개 사단 규모로 대폭 증강됐고, 독일식 군사기술 및 훈련방식의 수용으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13) 오스만 터키의 제1차대전 참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서가 유용하다: Mustafa

단절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군수물자 지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상황 변화와 더불어 1914년 11월 말부터 정부의 전쟁정책 최고결정기구인 전시위원회(War Council)에서 갈리폴리 원정작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시점에서 해군장관 처칠이 식민지 이집트를 방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터키의 갈리폴리 반도에 대한 공격을 제안했다. 성공할 경우, 다르다넬스 해협은 물론이고 이스탄불을 차지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주장이었다.<sup>14)</sup> 당시 영국군 군사정책 결정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군사보좌역의 행키(Lord Hankey)도 갈리폴리 원정작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sup>15)</sup> 육군장관 키치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915년 1월 전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이 작전은) 러시아와의 연결망을 재확립함은 물론 중근동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리스와 아마도 불가리아를 우리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현재 흑해에 봉쇄되어 있는 곡물과 선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sup>16)</sup>

근본적으로 갈리폴리 원정작전은 당시 영국의 세계전략과 맥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작전을 통해 형성될 새로운 방어망은 인도, 수에즈운하,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석유 등 국익 보호를 위해 영국이 투입할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탈리아를 협상 측으로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었다. 더구나 독일은 서부전선에 배치된 병력과 물자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도록 압박받을 것이고,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는 영국의 해군력은 물론이고 새롭게 전력을 증강한 러시아의 압력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해야만 할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근동 전선에서 더 이상 물자와 장비의 보급 수요가 필요 없게 된 협상 진영은 이를 서부전선에 집중, 그곳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이 작전이야

Aksakal, *The Ottoman Road to War in 1914: The Ottoman Empire and the First World War*(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8).

14) Public Records Office(이하 PRO), Cab. 19/1 3623. 25 November 1914.

15) Lord Hankey, *The Supreme Command 1914~18*, Vol.1(London, 1961), p.249.

16) PRO, Cab. 22/1 3623. 8 January 1915.

말로 당시 상황에서 영국과 협상진영이 당면하고 있던 제반 군사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묘책으로 인식됐다.

이처럼 갈리폴리 원정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1915년 1월 초 배후에서 터키를 공격해 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전문(電文)이 영국 정부에 당도했다. 이에 발맞추어 해군장관 처칠은 해군력만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 키치너 역시 1월 8일에 있었던 전시지도부 회의에서 15만 명의 병력이면 다르다넬스 해협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sup>17)</sup> 다른 누구보다도 처칠이 작전 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1월 13일에 처칠은 예하 해군부에 이 작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수주일 안에 해협에 설치된 장애물 제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국내에서 작전 실행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와 동시에 다르다넬스 해협에 설치된 기뢰들도 제거되어 급기야는 해군함대가 이스탄불까지 진격해 터키군을 섬멸할 수 있으리라 낙관했다.<sup>18)</sup> 원정작전에 대해 반대 또는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리라 예상한 프랑스조차도 영국의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sup>19)</sup>

드디어 1915년 2월 중순 지중해 함대사령관 카든 제독(Vice-Admiral Sackville Carden)의 지휘 하에 영국군의 갈리폴리 원정작전이 개시됐다. 총 18척의 전함과 수십 척의 소함정으로 편성된 영국 해군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에 접근했다. 2월 19일 아침 터키군의 해안 방어요새를 향해 영국 함대의 함포사격이 시작됐다. 같은 달 24일에 개최된 전시지도부 회의에서 키치너는 “영국 해군함대가 터키군의 해안 포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할 경우, 갈리폴리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군 병력도 철수할

17) PRO, Cab. 22/1 3623. 8 January 1915.

18) PRO, Cab. 19/1 3623. 13 January 1915; Churchill College Archive, Char 2/74/45-46, Minute by WSC on the Naval Arrangements, 20 January 1915.

19) Churchill College Archive, Char 2/74/56, Letter in French from Victor Augagneur(French Minister of Marine) to WSC indicating Agreement with British Proposals for Anglo-French Naval Co-operation, 31 January 1915.

것”이라고 전세를 낙관했다.<sup>20)</sup>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영국 해군함대는 3월 초 터키군의 해안 방어선 외곽을 제압하고 1단계 통로 개척에 성공했다.

그러나 터키군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았다. 지속적인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터키 해안방어부대의 주력은 건재했고, 해협에 설치된 기뢰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터키군은 각종 화기를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특히 터키군은 기동성이 양호한 해안포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대응했다. 공중 관측용 항공기의 동원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이러한 터키군의 이동 상황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대규모 화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함대의 공격은 외곽 방어망의 돌파를 제외하고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공방전만 지속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더구나 3월 중순에 실시된 영불 연합함대의 공격 중 3척의 영국군 전함이 터키군의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해군 단독작전의 한계가 드러났다. 바야흐로 지상군이 투입될 차례가 다가온 것이었다.

이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육군장관 키치너가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됐다. 그로서는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의 압박을 홀로 견디어내고 있는 러시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자신의 의지를 실천할 기회가 온 것이었다. 곧 육·해군 연합 상륙작전이 계획됐고, 해밀턴 장군(Sir Ian Hamilton)이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예하 참모들과의 숙고 끝에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sup>21)</sup>, 갈리폴리 반도의 중앙부에 있는 킬리드 바(Kilid Bahr) 고원을 주공(主攻) 목표로 선정했다. 고지대인

20) Meeting of the War Council, extract from Secretary's Notes, in M. Gilbert, *Churchill, Vol. III, Part I*, pp.555~561에서 재인용.

21) 상륙작전 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국군 제29사단이 주공을 담당하여 갈리폴리 반도 남단의 헬레스곶에 상륙하고 이후 계속 전진하여 주목표인 킬리드 바 고원지대를 점령한다;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단과 프랑스 사단이 조공으로서 가바 테페 북쪽 지역과 쿼 케일에 상륙하여 터키군을 견제한다; 주공격이 실시 직전에 앞의 두 작전지역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한 양동작전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갈리폴리 반도에서 벌어진 개별 전투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최근 발간된 다음 저서가 유용하다: Peter Hart, *Gallipoli*(Oxford: Oxford Univ. Press, 2011).

이곳을 성공적으로 점령할 수만 있다면 터키군의 다른 요새들은 지상관측과 함포사격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었다. 총 77척의 각종 선박에 분승한 원정군은 4월 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출발하여 4월 21일에 갈리폴리 반도 부근의 그리스령(領) 렘노스 섬의 무드로스(Mudros) 항구에 도착했다.

4월 25일에 영국 원정군은 갈리폴리 반도 남단의 헬레스곶(Cape Helles) 및 에게해 쪽의 가바 테페(Gaba Tepe)에 상륙했다. 처음에 터키군의 저항은 미미하였으나 부적합한 장비, 협조체제의 결여 그리고 주공부대였던 제29사단 사단장 훈터-웨스턴(Hunter-Western) 장군의 통제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작전의 주도권은 곧 터키군 쪽으로 넘어갔다. 예기치 못한 터키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상륙부대는 더 이상 내륙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해안가에 웅거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8일 원정군은 고지대에서 터키군을 밀어내고 아키 바바(Achi Baba)의 감제고지를 장악할 목적으로 이의 통로에 해당하는 크리시아(Krithia)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어서 시도된 2차, 3차 공격도 많은 사상자만 남긴 채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최초 확보한 해안가의 교두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갈리폴리의 상황은 유럽의 서부전선에서처럼 점차 참호전으로 변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리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정군은 1915년 7월 말까지 총 14개 사단으로 병력을 대폭 증강했다. 해밀턴 사령관은 제2차 상륙작전에서는 주공을 갈리폴리 반도 서북쪽의 안작만(Anzac Cove)으로 결정했다. 터키군이 갈리폴리 반도 입구에 있는 원정군의 헬레스곶 교두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방향에서 대규모 병력으로 기습작전을 감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3개 지점에 동시에 병력을 상륙시킬 작정이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기초로 8월 6일 한 시간에 걸친 함포의 준비포격에 이어서 주공을 담당한 안작군단이 공격을 감행했다. 격렬한 접전 끝에 공격부대는 야간에 터키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다음날 새벽에는 원래 주공 목표였던 사리배어

능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터키군 증원부대에 의한 역습으로 인해 이후 3일 동안에 걸친 수차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원정군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수블라만에 대한 상륙작전도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상륙부대(영국군 제9군단)가 해안에서 장시간 지체하는 통에 결국에는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영국군의 원정작전이 실패했다는 징후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0월 14일에 그동안의 패배 책임을 물어 해밀턴 장군이 해임되고 먼로 장군이 후임 사령관으로 임명됐다.<sup>22)</sup> 그는 곧 본국 정부에 원정군의 철수를 건의했고, 최종 판단을 위해 11월 3일에는 키치너 장군이 직접 갈리폴리의 영국군 해안 점령지역을 방문했다. 원정군이 전략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지점에 웅거하고 있는 실상을 목도한 키치너도 결국에는 철수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12월 달에 먼저 안작만과 수블라만에 상륙한 병력이, 이어서 1916년 1월 8~9일에 헬레스곶의 병력이 철수했다.

승리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서 시도된 갈리폴리 원정작전은 영국군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장악하려던 영국군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무려 연인원 약 48만 명이 작전에 투입됐으나 얻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상당량의 군 장비도 대부분 터키군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이 작전을 통해 터키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격파하리라던 영국 측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비록 약 25만~30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터키군은 발칸전쟁에서 당한 수모를 떨쳐내고 국가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

이와는 반대로 갈리폴리 작전 실패는 영국군의 위신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비록 흑자는 성공적인 철수작전을 들먹이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했으나 후진국 터키와의 대결에서 당한 패배는 당시 세계 최대의 식민

22) C. Nicolson, *The Longman Companion to the First World War: Europe, 1914~18*(London, 2001), p.123.

제국였던 영국의 위상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다. 특히 안작만 전투에서는 3만 4천 명에 달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원정작전 실패 여파로 불가리아는 동맹진영으로 가담했고, 두 진영 사이에서 망설이던 그리스 왕실의 태도도 독일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 3. 영국군 수뇌부의 식민지 경험과 그 영향

갈리폴리 원정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당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에스퀴스 정부에 의해 실시됐다. 1916년에 접어들어 영국은 갈리폴리 반도 철수 이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정부는 연이은 군사적 패배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만 했다. 행키를 비롯한 전시지도부의 일부 위원들은 기밀 유출을 우려해 갈리폴리 원정작전 관련 자료의 발간에 반대했으나 조사를 요구하는 거센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적당한 이유를 들어 그냥 넘어가기에는 패배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1916년 특별위원회 법에 근거해 갈리폴리 및 다르다넬스 원정작전에 대한 위원회가 설치됐다. 약 1년(1916년 8월 말 ∞ 1917년 9월 초) 동안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1917년 12월에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sup>23)</sup>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처칠, 키치너, 그리고 해밀턴이었다.<sup>24)</sup> 이들 세 사람은 원정작전의

23) 위원회는 1916년 8월말부터 이듬해 9월초까지 총 168명의 증인들로부터 인터뷰 및 서신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2권의 보고서(1권 Cd 8490, 1917; 2권 Cmd 371, 1918)로 작성 발간했다. 최근에 영국 국가문서보관소가 이 보고서들을 단행본으로 재발간한 바 있다(T. Coates, ed., *The Dardanelles Commission Part I: Lord Kitchener and Winston Churchill, 1914~15; Part II: Defeat at Gallipoli, 1915~16*, London, 2000).

24) 다르다넬스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직후에 이를 분석한 다음 글에서도

시작부터 철수 시까지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맨 먼저 주목을 받은 인물은 해군장관 처칠이었다. 그는 원정작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갈리폴리 원정작전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1915년 5월 해군장관직에서 사임했고, 지속적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sup>25)</sup> 특히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수천 명 장병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영국군의 운명을 위협에 처하게 만든 과대망상적인 정치가”로 혹평하기조차 했다.<sup>26)</sup>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핵심인물은 육군장관 키치너였다. 그 역시 직간접적으로 원정작전과 관련되어 있었고, 병력 및 군수물자 증강을 요구한 원정군의 건의를 계속하여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1916년 여름에 러시아로 향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익사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수 없었다.<sup>27)</sup> 이로 인해 원정작전의 실패를 주로 키치너의 탓으로 돌리려던 처칠과 해밀턴의 암중모색도 무산됐다. 물론 이후에도 키치너는 처칠과 해밀턴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당사자가 사라진 마당에 그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불가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인물은 원정군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휘했던 해밀턴이었다. 그는 처칠처럼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실패의 요인은 전장이 아니라 런던 본국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John Leyland, “Lessons from Dardanelles Report”, *Nineteenth Century and After*, Vol.81(April, 1917), p.920.

25) 거센 비판에 대응해 처칠은 저술(*The World Crisis 1915*, London, 1923)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26) M. Gilbert, *Churchill*, Vol.Ⅲ, p.811. 해군장관 직을 사임한 처칠은 그해 가을을 서부전선에서 최전방 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후 의회 연설 및 언론 기고의 형식으로 조사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했다. 이후 그는 로이드 조지 연립정부의 군수물자부장관으로 발탁(1917년 7월)되어 내각에 복귀했다.

27) 1916년 6월 5일 러시아와 군수물자 판매 협상을 위해 키치너와 수행원들을 싣고서 영국의 스카파 플로우항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영국해군 전함 햄프셔(HMS Hampshire)호가 북해상에서 독일의 잠수함이 부설해 놓은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는 전희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키치너를 비롯해 총 7백여 명에 달한 승선인원들 대부분이 사망했다.

하지는 않았으나 나름 은밀한 방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려고 했다. 갈리폴리에 상륙한 바로 그때부터 해밀턴은 마치 나중에 자신의 행위 및 원정작전을 옹호하려고 준비한 듯이 보였다.<sup>28)</sup> 작전 중에 그가 본국으로 보낸 전문이나 메모, 다르다넬스 위원회에 대한 그의 태도, 그리고 제출한 증거 및 연설 등을 검토해 볼 경우, 그가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작전기간 동안에는 성공과 평판을 쌓는데 주력했으나 사령관 직에서 해임된 직후부터는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의혹의 눈길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렇다면 갈리폴리 원정작전의 실패 책임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넓게는 구조적인 요인에 있겠으나 그동안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세 핵심인물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29)</sup> 이들의 행보가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처칠은 갈리폴리 원정작전이 지닌 전략적인 이점에 몰입된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이를 밀어 붙였다는 점에서, 키치너는 서부전선에 집착하여 갈리폴리 전장에서 요구한 인원과 물자의 지원에 인색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밀턴은 원정군 사령관으로서 실전(實戰) 상황에서 조차 예비부대의 작전수행을 너무 방임했다는 점에서 주로 비판을 받았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원정작전의 어느 단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sup>30)</sup> 왜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갈리폴리 원정작전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을까?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한 근본적

28) 전후 해밀턴은 원정작전 중에 자신이 적은 메모나 일기 등을 주 사료로 하여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노력을 밝혔다: Sir Ian Hamilton, *Gallipoli Diary*, Vol. I & II(London: Edward Arnold, 1920).

2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를 참고할 것: 이대주, 「처칠, 키치너, 그리고 해밀턴의 삼중주?: 1915년 영국군 갈리폴리 원정 실패 책임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20호(2008), 245~269쪽.

30) 작전의 구상과 착수 단계에서는 처칠에게, 작전 실행의 초기단계에서는 키치너에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륙작전에 돌입한 이후에는 해밀턴에게 좀 더 과중한 실패의 책임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이 있다면 이는 과연 무엇일까? 작전의 준비단계 및 심지어는 진행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18세기 중엽부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식민지 쟁탈전쟁에서 연전연승했던 영국군의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상대방 터키군을 무시하는 일종의 서구중심주의적 사고 방식에 몰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세기에 영국인들은 자유와 정의 실현의 선구자인 자신들 앵글로색슨족이야말로 열등하고 미개한 인종들을 통치하고 문명화로 이끌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선민의식에 몰들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후반기에 대두한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의 영향 하에서 과학적 외피를 입고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sup>31)</sup> 이러한 오도된 제국주의적 시각이 적군인 터키군의 전력(戰力)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작전을 감행토록 추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론은 갈리폴리 원정작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세 인물의 과거 경력을 살펴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수뇌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원정작전을 추진했음은 작전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단적으로 당시 영국의 최고 군사정책 결정기구였던 전시위원회에서 갈리폴리 작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전시위원회의 서기로 활동했던 행키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시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을 비판했다.<sup>32)</sup> 그는 에스퀴스 수상의 영도 하에서 각종 회의가 문서화된 공한(公翰)이나 전문가인 참모들의 평가도 없이 편의적으로 그리고 간혹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어떠한 통합적 조정기능도, 해군이나 육군의 전문적인 자문도, 또는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도 생략된 채 각 해당 부서들 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시위원회의 일부 결정들은 실행과정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타성적인 타협으로

31)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박지향,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I):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2호(1998), 161~194쪽을 참고할 것.

32) Lord Hankey, *The Supreme Command 1914~1918*(London, 1961).

인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다. 전시지도부가 통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내각이나 전시지도부의 사전 승인이나 심지어는 통보도 없이 키치너의 독단적 명령을 받고서 해밀턴이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행키는 전시지도부의 구성원 전체가 터키군의 방어전력을 과소평가하는 우(愚)를 범했다고 지적한다.<sup>33)</sup>

원정작전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해군장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처칠은 왜 터키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승리를 낙관했을까? 젊은 시절부터 식민지에서 초급장교 및 특파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던 처칠은 은연 중 제국주의적 편견에 젖어서 터키군의 전력을 무시했던 것은 아닐까. 1886년에 보수당정부의 재무부장관으로 차기 수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랜돌프 처칠(Randolph Churchill)의 아들로 태어난 처칠은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기병대 초급장교이자 종군기자 자격으로 인도, 수단,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 영제국의 주요 전장을 다니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동시에 저널리스트로서 필명(筆名)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어군의 포로로 생포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그는 1900년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sup>34)</sup> 이후 식민부차관, 상무부장관, 그리고 내무부장관을 거쳐서 1911년 제2차 모로코 사건을 계기로 애스퀴스 내각의 해군장관이 되었다.<sup>35)</sup> 1915년 5월까지 약 4년간 해군부를 이끌면서 처칠은 해군

33) E. Spiers, "Chapter 7 Gallipoli", in B. Bond(ed.), *The First World War and British Military History*(Oxford, 1991), p.178.

34) M. Gilbert, *Churchill: A Life*(New York: Henry Holt, 1991), pp.45~50.

35) 그는 1908~15년, 1917~22년, 1924~29년, 그리고 1939~40년에 내각의 각료였고, 마침내 1940~45년, 1951~5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상직을 역임할 정도로 정치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1908~11년에는 식민부차관으로서 직접적으로 식민지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이때 그의 뇌리에는 영국은 신이 영국민에게만 허락한 책임 있는 현실정서를 식민지에 전파하고 이식시킬 책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Ronald Hyam, "Chapter 10 Winston Churchill's First Years in Ministerial Office, 1905~1911", in *Understanding the British Empire*,

참모단 및 항공대 창설, 함대 연료용 석유 공급원 확보와 같은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으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갈리폴리 원정작전에 실패하면서 불명예에 퇴진하고 말았다. 이후 1917년 7월에 로이드 조지 수상에 의해 군수물자부 장관으로 재기용될 때까지 처칠은 서부전선에서 야전부대 지휘관으로서 일종의 백의종군을 수행했다.<sup>36)</sup>

원정작전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키치너는 1897년 옴두르만 전투 및 1900년 보어전쟁에 처칠과 함께 참전했기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런던의 중앙정부에서 육군장관으로서 영국군의 전쟁수행 전반을 관장했던 키치너도 갈리폴리 원정작전 시 터키군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했고, 식민지에서 영제국의 영토 확장과 이익 보호에 잔뼈가 굵은 자신의 군대 경험 때문인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터키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sup>37)</sup>

키치너는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한마디로 그는 영국제국주의가 배출한 대표적 군인이었다. 1850년에 영국군 하급장교의 아들로 태어난 키치너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제1차대전 발발 이전까지 영제국 각지에서 무공을 세운 당시 영국육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sup>38)</sup>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의 영제국 식민지에서 근무한 키치너가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기묘하게도 해밀턴, 처칠, 그리고 키치너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참전했던 1897년 수단의 옴두르만 전투였다. 일찍이 1885년에 또 다른 영제국주의 전쟁의 대중적 스타였던 고든 장군의 죽음을 응징하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영국군을 이끌고 옴두르만으로 가서 1897년 그곳에서 마흐디가 이끈 이슬람 광신도 집단을 괴멸시킨 소식이 본국에 전해진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0, p.300).

36) M. Gilbert, *The Challenge of War: Winston S. Churchill 1914~1916*, Vol.Ⅲ (London: Minerva, 1971), p.811.

37)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p.23~25.

38)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대표적 전기작가로 꼽히는 맥너스는 책의 부제에서조차 키치너를 '제국주의자'로 적고 있다: Philip Magnus, *Kitchener: Portrait of an Imperialist* (New York: E. P. Dutton & Company, INC, 1959).

것이 그가 전국적 인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sup>39)</sup> 그는 일종의 ‘전쟁의 신’처럼 과대평가된 채 일반 영국인들의 뇌리에 새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의 인기는 1900년에 그가 로버츠 장군의 후임으로 남아프리카 원정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보어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더욱 높아졌다.<sup>40)</sup>

1914년 8월 대전이 발발했을 때, 키치너가 전쟁수행을 주도하는 육군 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애스퀴스 수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국민들은 이 제국주의 전장의 영웅이 이번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오산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평생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열세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식민지인들과 싸워온 키치너로서는 기관총, 야포, 독가스 등이 동원되고 참호전 및 살육전으로 전개되고 있던 제1차 세계대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키치너가 경험해 온 식민지의 전장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1870년대 이후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들 간에 벌어진 충돌은 전력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비대칭적인 경우의 하나였다. 전자에게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냥에 가까운 싸움이었던데 비해 후자에게 전자와의 조우는 당혹스럽고 희망이 없는 투쟁이었다. 후장식소총은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의지를 결정적으로 무산시켰다. 1890년대에 식민지주둔 영국군에 맥심기관총과 속사식 경야포가 배치되면서 아프리카대륙에서 유럽 군대와 식민지 원주민 저항세력 간에 전력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 간의 충돌은 전투가 아니라 흡사 후자에 대한 전자의 살육전이라고 해도 무방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인들이 무기 및 전술에서 경험한 서구문명의 우월감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문화나 사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39) 이때 처질은 활발한 사전 로비를 통해서 키치너 장군의 선발 반대를 극복하고 제21창기병 연대의 초급장교로 원정부대에 합류할 수 있었다(처질, 한영순 역, 『윈스턴 처칠: 내 젊은 날의 추억』, 범조사, 1987, 181~183쪽).

40)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19.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양은 우월하기에 미개한 식민지 주민들을 교화로 이끌 자격과 사명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헨슨(Victor D. Hanson) 같은 연구자는 서구의 우월성 연원을 그리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sup>41)</sup>, 이것이 19세기 제국주의시대에 벌어진 충돌에서처럼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갈리폴리 원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사령관 해밀턴에 대해 살펴보자. 1915년 3월 중순에 갈리폴리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됐다는 전갈을 받은 해밀턴 역시 학자풍의 외모와 필력을 지녔으나 근본적으로 영 제국의 식민지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다. 그는 40여 년에 걸친 자신의 군 생활 대부분을 아프가니스탄, 버마, 인도, 수단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영제국의 식민지 주둔군 장교로 보내었다. 이외에도 그는 한동안 육군 검열관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제국의 식민지를 순방하면서 군의 실태를 조사한 경력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러일전쟁 동안에 영국군 관전단의 일원으로서 일본군에 배속되어 전투를 참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현대전의 양상에 대해 수준 높은 관전보고서를 작성해 군내에서 명성을 얻기도 했다.<sup>42)</sup> 그는 갈리폴리 원정 당시 해군장관이던 처칠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1897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옴두르만 전투였고 이후 양인은 보어전쟁에서도 함께 하게 됐다.<sup>43)</sup>

41) 헨슨은 서양은 고전 그리스시대 이래로 폴리스 간에 팔랑크스 대형을 이용한 ‘정면대결’이라는 전투방식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스에서만 존재한 자유시민 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바로 이러한 서양의 특수성 속에 근대 이후 서양세력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비결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V. D. Hanson, *The Western Way of War: Infantry Battle in Classical Greece*(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9); *Carnage and Culture: Landmarks Battles in the Rise of Western Power*(New York: Doubleday, 2001); *A War Like No Other: How the Athenians and Spartans Fought the Peloponnesian War*(New York: Random House, 2005) 등을 참고할 것.

42) 해밀턴의 생애에 대해서는 John Lee, *A Soldier's Life: General Sir Ian Hamilton* (London: Pen Books, 2000)을 볼 것.

43) 보어전쟁 시에 해밀턴은 키치너 사령관의 참모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처칠도 초급장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밀턴과 키치너의 관계였다. 1897년 옴두르만 전투 시에 키치너 예하에 있었던 해밀턴은 보어전쟁 시에는 키치너 사령관의 참모장으로서 근무하는 질긴 인연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해밀턴은 일생 동안 키치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이 상으로는 두 살 차이에 불과했으나 해밀턴에게 키치너는 군의 영원한 직속상관이었다. 따라서 키치너에 대한 해밀턴의 태도는 흡사 퍼블릭 스쿨의 스승과 제자 사이처럼 상하관계가 분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밀턴이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키치너에게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해밀턴이 장관 집무실로 인사차 방문했을 때 키치너는 “우리가 현재 다르다벨스 해협에 있는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육군병력을 파병하고자 하는데, 자네가 원정부대를 지휘해줘야 하겠네.”라고 짧게 언급하면서 이어서 참모장으로 브레이드웨이트 소장(Major-General Walter Braithwaite)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sup>44)</sup> 명색이 원정군 사령관인 해밀턴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키치너의 태도에 대해 해밀턴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다.

해밀턴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상대인 터키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갈리폴리로 출발하기 직전에 해밀턴은 재차 키치너를 방문했다. 이때 키치너는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원정군의 명칭을 ‘지중해원정군(Mediterranean Expeditionary Force)’으로 할 것; 다르다벨스 해협에 대한 해군함대의 공격이 실패한 경우에만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 전황보고는 키치너 자신에게 직접 보낼 것.<sup>45)</sup> 이것이 전부였을 뿐 터키군에 대해서는 단지 갈리폴리 반도가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을 것이고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적군의

---

이자 특파원의 자격으로 참전한 끈끈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감안할 시 해밀턴이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는데 해군장관 처철의 도움이 컸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4)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p.24~26.

45) Liddell Hart Centre for Military Archives(King's College London), Hamilton Papers 7/4/5, 12 March 1915.

저항이 만만히 않을 것이라는 추측성 언급 이외엔 한마디도 없었다. 터키군이 중형 대포(heavy gun)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갈리폴리 반도 주둔군의 실질적 지휘관은 누구인지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없었다.

당시 영국군은 적군인 터키군의 전력에 대해 거의 백지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해밀턴은 이스탄불 주재 영국무관이 보내는 다르다넬스에 대한 정보보고서조차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전장인 갈리폴리로 갈 때 명색이 사령관인 해밀턴이 지참한 것은 1912년에 작성된 터키군에 대한 한 권의 노트와 터키에 대한 두 권의 여행용 가이드 책자만 전부였다.<sup>46)</sup> 해밀턴이 키치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장관 집무실을 떠나려고 할 때, 키치너가 해밀턴에게 던진 마지막 말은 터키군의 실상에 너무 무지한 일종의 제국주의적 오만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해군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만 한다면, 콘스탄티노플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휘관이 될 것인데.”<sup>47)</sup>

그렇다면 당시 영국군의 전쟁 상대인 터키군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갈리폴리 전투와 관련된 또 다른 핵심인물은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었다. 그는 갈리폴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군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1923년에는 터키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됐다. 터키군내에서 그의 실력은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갈리폴리 전투 이전에는 엔웨르(Enver Pasha) 및 탈라트(Col. Talat)와 같은 1908년 혁명세력 내 실세들의 그늘에 가려서 권력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보석은 숨겨져 있어도 빛을 발한다는 말처럼 주변부에 있던 케말은 대전 전에 이스탄불을 방문한 바 있던 영국군 월슨장군(General Sir Henry Wilson)에 의해 장차 터키군을 이끌 재목감으로 주목받은 바 있었다.<sup>48)</sup>

46) L. A. Carlyon, op. cit., p.29.

47) L. A. Carlyon, op. cit., p.28.

48)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p.29~31. 1881년에 마케

#### 4. 오스만 터키군의 실상

어떻게 해서 터키군은 영국 수뇌부의 예상을 깨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갈리폴리 전투 발발 시에 터키군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과연 터키군은 영국군 원정군이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지 못했기에 일종의 어부지리로 갈리폴리 전투에서 이긴 것일까? 물론 그러한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무엇보다도 당시 터키군은 영국군 수뇌부가 얽잡아본 것과는 달리 갈리폴리 전투를 전후로 인적 및 물적으로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왔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체였다. 한 예로 원정작전의 패배 후 설치된 다르다넬스 조사위원회에서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터키군이 그 정도로 잘 싸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sup>49)</sup>

만일 이 언급이 사실이라면, 왜 터키군은 그토록 잘 대응했는가? 우선 인적 측면에서 영국 원정군이 상대한 터키군은 영국군 수뇌부의 판단처럼 지휘체계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당시 오토만 제국군 내에서 최강의 정예 병력이었다. 이들을 지휘한 장교들도 이전의 발칸전쟁에서 실전까지 경험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었다.<sup>50)</sup> 게다가 하드웨어적

---

도니아 지방의 살로니카에서 목재상의 아들로 태어난 케말은 서양적인 측면과 동양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었다. 전자와 관련해서 그는 논리적이고 실질적이며 사고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성품을 보여주었고, 후자와 관련해서 그는 민주적이지만 특히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추진하는 면에서 독재자와 같은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다소 유약하고 내성적이었던 해밀턴과는 정반대되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 두 사람이 갈리폴리 반도에서 한 사람은 원정군 사령관으로서 다른 한 사람은 이를 지키는 제19사단(신설사단으로 3개 연대, 총 1만여 명의 규모)의 지휘관으로서 격돌하였던 것이다. 케말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다음 책을 참고할 것: 앤드류 망고(곽영완 역),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건국의 아버지 아타튀르크 일대기』(에플미디어, 2012).

49) R. Rhodes James, *Gallipoli: The History of a Noble Blunder*(New York: Macmillan, 1965), p.93.

50) 갈리폴리 전투 당시 갈리폴리 반도의 주방어군은 신설된 터키군 제5군이였다. 독일군의 잔더스 장군을 사령관으로 그 예하에 제3군단과 제15군단(예하에 3사단과 11사단을 갖고서 반도 건너 아시아쪽 방어담당)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갈리폴리 반도를 실질적으로

측면에서도 터키군은 길게는 30여 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짧게는 1, 2차 발칸전쟁(1912~13)을 계기로 갈리폴리 반도의 방어진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강하고 체계화시켜 놓고 있었다. 터키군은 영국군의 공격 개시 이전부터 갈리폴리 반도를 전략적 요충으로 판단하고 요새화했던 것이다.<sup>51)</sup> 결과적으로 영국 원정군은 오토만 제국 영토 내에서 방어망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상륙했던 것이다.

물론 상대방 터키군의 실상에 무지했던 영국 원정군의 오만한 태도는 별다른 근거 없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오토만 제국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쇠퇴의 기운이 완연해져 심지어는 ‘유럽의 병자’로 불리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대표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오토만 제국 내부 또는 주변의 제민족들 -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 도 발칸지역과 코카서스 지방을 빼앗기 위해 경쟁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벌어진 크림전쟁(1854~56) 및 러터전쟁(1877~78) 과정에서 서방에 비친 터키군은 쇠락한 거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sup>52)</sup> 게다가 세기의 전환기 및

---

방어하고 있던 것은 터키군 내에서도 최고의 정예부대로 손꼽히고 있던 제3군단 예하의 7사단, 9사단, 그리고 무스타파 케말이 지휘관으로 있던 제19사단이었다. 케말 이외에 당시 제3군단장이던 에사트 파샤(Esat Pasa)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 1915년에 52세였던 그는 엘리트 교육기관인 참모대학(War Academy)을 졸업한 유능한 장군이였다. 발칸전쟁에서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은 그는 이후 갈리폴리 반도에서 근무하면서 지형을 익힌 후 갈리폴리 전투 시에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사실상 터키군에서는 1913년 제2차 발칸전쟁 이후 청년터키당에 의해 터키군 장교단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이루어졌다. 군 현대화라는 목표 하에 사전 자격심사를 거쳐서 무능하다고 판단된 고급장교들을 군에서 축출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고급장교들 중 한 명이 바로 에사트 파샤였다(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5(4), Oct. 2001, p.996).

51) Liddell Hart Centre for Military Archives, Hamilton Papers 7/9/7, Answers by Turkish General Staff to Questions asked by the Official Historical A. I. F.(Dec. 1919). 이는 전후에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공간사(公刊史) 집필을 위해 영국 측에서 전투에 참전했던 터키군 참모에게 보낸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인데, 이를 통해 당시 터키군의 병력 배치 현황 및 반응 등을 어느 정도 상세히 엿볼 수 있다.

52) 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1912~1913년에 벌어진 발칸전쟁에서의 패배는 과거 서방을 위협했던 군사강국으로서 터키군의 명성은 완전히 끝났음을 재차 입증하는 듯이 보였다. 서툰 기동, 엉성한 전략, 나락으로 떨어진 전투력 등 터키군의 와해된 모습은 당시 서방관찰자들의 눈에 포착되어 본국의 군 수뇌부 및 참모부에 전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터키군에는 잘 훈련되고 기동작전도 훌륭하게 수행하는 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터키군 나름대로 군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던 점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 원정군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당시 터키군이 과거의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전투역량 및 무엇보다도 방어작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점을 간과한 것이다. 더구나 19세기 말부터 독일군의 지원과 지도 감독 하에서 터키군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해 오고 있었다.<sup>53)</sup> 결과적으로 1915년에 영국군은 터키군의 약점을 겨냥하여 자신의 강점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동하는 우(愚)를 범했던 것이다.

독일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르러 터키군은 약 40개 사단의 병력으로 대폭 증강됐다. 터키는 전 병력을 총 4개군으로 편성하고 이 중에서 제2군에게 갈리폴리 반도에 대한 방어를 맡겼다. 그리고 이미 1914년 9~10월에 갈리폴리 반도의 방어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독일군 요새 구축 전문가들을 파견한 바 있었다. 이들은

---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65(4), Oct. 2001, pp.983~984.

53) 터키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오랜전부터 시작됐다. 19세기 말 이래로 터키군대는 독일 군사고문단의 지도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독일군 교리와 참모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터키군의 고급장교들 대부분은 독일군의 군사대학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2년 과정의 고급 참모대학(War Academy)에서 수학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터키군 군단장이나 사단장들은 지휘하는 부대를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독일적 지휘방식의 훈련을 받았다. 바로 갈리폴리 전투에서 무스타파 케말이 보여준 고도의 전문화된 지휘 스타일이 바로 이 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비록 독일인이지만 잔더스 장군은 갈리폴리 반도 방어를 책임진 터키군 제5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전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전의도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터키군 장교들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서 일종의 다국적군을 이끌었던 해밀턴 장군의 처지와 비교했을 시, 잔더스 장군은 인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Erickson, p.997).

영국군의 공격이 가해질 만한 전술적 요충지들을 미리 체크하고 보강했다. 당시 대포, 지뢰, 그리고 탄약과 같은 군수물자의 심각한 부족이 터키군의 당면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 역시 영국군의 공격 개시 이전부터 수입되는 군수물자를 갈리폴리 반도로 집중 투입한 덕분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된 상태였다.<sup>54)</sup> 또한 강력한 이슬람 민족주의 및 전장에서의 죽음을 신성시하는 종교교리를 통해 효율성이 부족했던 지휘 체계를 보완하고 있었다.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영국군의 공격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터키군은 갈리폴리 반도를 일종의 특별 작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전력증강을 시도했다.<sup>55)</sup> 1915년 4월 약 8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제5군을 창설해 갈리폴리 반도 전담부대로 정하고, 당시 독일 군사고문단의 총수였던 잔더스 장군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일찍이 그는 터키의 혁명정부 수뇌부에 다르다넬스 해협과 갈리폴리 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었다. 그는 기존의 선방어 개념을 기동방어 형태로 변경하여 적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지점에 신속하게 지원군을 보내는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예하 전 병력을 삼분(三分)해서 상륙예상지점에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sup>56)</sup>

54) M. Gilbert, "Chapter 1. Churchill and Gallipoli", in J. Macleod(ed.), *Gallipoli: Making History*(London, 2004), p.17. 당시 터키군은 포탄이 심하게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구나 4월말 이후로 터키군은 대포, 기관총, 라이플 총, 철조망 및 참호체계 등으로 막강한 방어력을 구축하여 원정군의 공격력에 버금가는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Tim Travers, *Gallipoli 1915*, p.300).

55) 특히 1914년 11월 초에 영국 함대가 다르다넬스로 접근하여 터키 해안에 위협 포격을 가한 것을 계기로 터키군은 이 지역에 대한 경계 및 방어태세를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해협의 초입지역에 여러 채의 방어요새들을 새로 구축하고 해안포를 설치했으며, 무엇보다도 해협의 바다 밑에 기뢰와 대잠수함망을 설치하여 영국 함대의 통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56) 한 예로 영국군이 수블라만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자 그는 즉시 당시 대령이던 무스타파 케말을 사단장으로 임명하여 단기간 내에 수블라만으로 추가 병력을 파병하는데 성공했다. 케말의 지휘 하에 강행군으로 수블라 만에 도착한 터키군은 영국 상륙부대가 해안가에서 부질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고지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터키군의 방어태세와는 달리 영국 측은 런던의 수뇌부로부터 갈리폴리 전장의 장병들에 이르기까지 적군의 실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 우선 런던에 있던 영국정부 인사들은 제국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터키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이는 육군장관 키치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에 영국 내각의 각료들은 물론이고 전문보좌관들조차도 영국 해군함정이 이스탄불 앞에 출현하기만 해도 터키는 금방 항복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오만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sup>57)</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정작전을 구상할 때부터 영국군 측은 터키군에 대한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보들에 의존하고 있었다.<sup>58)</sup> 이러한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들을 기초로 영국 원정군 참모들은 상륙작전을 계획했던 것이다. 오늘날 서방세계의 대표적인 터키군 전쟁사가로 손꼽히는 에릭슨(Edward J. Erickson)은 이러한 영국 원정군 수뇌부 및 참모들의 뇌리에 담겨 있던 우월의식과 여기에서 배태된 터키군의 전투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당시 터키군에 대한 정보 부재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59)</sup> 실제로 원정작전 당시 이러한 제국주의적 시각이 군 수뇌부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편만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터키군을 자신들의 용맹함 및 전투능력에 크게 뒤지는 취약한 군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속성상 다국적군 -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그리고 뉴질랜드군 - 으로 구성되어 원천적으로 효율적인 지휘가 어려웠던 영국 원정

57) Tim Travers, op. cit., p.186.

58) 대전발발 이전에 터키에서 활동했던 영사나 무관들, 그리고 대전발발 직후 이스탄불을 방문 중이던 영국 해군대표단이 수집한 정보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59) 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65(4)(Oct. 2001), p.983. 최근에 에릭슨은 갈리폴리 전투 시 터키군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을 선보인 바 있다: E. J. Erickson, *Gallipoli: The Ottoman Campaign*(Barnsley: Pen & Sword Military, 2010). 그리고 터키군의 입장에서 갈리폴리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K. Fewster, V. Basarm, and H. H. Basarm, *Gallipoli: The Turkish Story*(Crows Nest: Allen & Unwin, 2003)를 참고할 것.

군이 일종의 흠그라운드인 갈리폴리 반도에서 이미 전투를 대비하고 있던 터키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터키군은 1915년 3월 18일에 벌어진 초기 전투에서 해협에 부설된 기뢰와 해안에 설치된 대포를 이용하여 영불 연합해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 터키 측 자료에 의하면, 당시 다르다넬스 해협에는 그동안 알려져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뢰가 부설되어 있었다. 원정작전 종료 후에 처칠은 당시 터키군은 포탄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영국해군이 한 차례 더 공격을 가했더라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터키군은 포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구나 4월말 이후로 대포, 기관총, 철조망 등으로 무장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sup>60)</sup>

## 5. 나오는 말

우리는 앞에서 1915년에 전개된 갈리폴리 원정을 작전 전말(顛末)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세 인물들 - 처칠, 키치너, 해밀턴 - 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실패의 책임 경중을 누구에게 놓든 간에, 당시 터키군의 전력을 감안할 시, 이는 진정한 의미의 분석으로는 미흡하다. 다시 말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갈리폴리 반도를 방어하고 있던 터키군의 전력이 그토록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군 수뇌부 및 심지어는 전장의 장병들조차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위의 세 인물들을 관통하는 공통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0) 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65(4)(Oct. 2001), p.1011.

간접적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젊은 시절에 영제국의 식민지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이들은 연중에 일종의 제국주의적 오만함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고로 전투의 기본 중 기본인 적군 전력에 대한 사전 파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형편없을 것’이라던 이들의 인식과는 달리 터키군은 무기 및 진지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지휘관의 자질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무스타파 케말이나 에사트 파샤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서방진영 장교들에 뒤지지 않는 자질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 원정군의 패배는 예정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췌 탓에 영국 원정군은 1915년 1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래로 수시로 기본 작전개념을 변경해야만 했다. 그 결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둘러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작전이 개시된 이후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통에 결과적으로 피해만 증가하였다. 전쟁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서부전선에 놓여 있던 전략적 상황에서 주전장으로부터 이격된 지중해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본질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원정작전을 주도한 인사들은 적군의 전력을 얽잡아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전 합의 및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서둘러 작전이 개시되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유들도 있겠으나 애초부터 육·해군 합동작전이 아니라 해군 단독작전으로 실시한 것은 당시 터키군의 실상에 대한 영국 측의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수뇌부 정치학(high politics)’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갈리폴리 원정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세 인물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의 기존 연구들은 원정작전 실패의 책임이 이들 중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물론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세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패의

근본적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를 식민지 주둔 경험을 통해 이들 세 인물의 뇌리에 은연중에 물들어 있던 서구중심의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구했다. 물론 실패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과 역할을 제약한 제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나 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갈리폴리 원정, 다르다넬스, 이스탄불, 처칠, 키치너, 해밀턴, 안작군단, 오스만 터키, 잔더스 장군, 무스타파 케말

<ABSTRACT>

##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Failure of the British Gallipoli Campaign in 1915

- Focusing on the Imperialistic Prejudices of the British High Command and  
the Reality of the Turkish Army -

Lee, Nae-joo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Gallipoli campaign was to capture Istanbul and thereby defeat Turkey, an ally of Germany. The strategy was initiated by First Lord of the Admiralty Winston Churchill and soon accepted by Secretary of State for War Lord Kitchener. Initially, an attempt was made to force a way by sea alone through the narrow Dardanelles Straits. The navy bombardment of the Narrows' defences was unsuccessful and ceased on 18 March 1915. Meanwhile plans developed to support the navy with landing force. On 25 April 1915 men of the Mediterranean Expeditionary Force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Sir Ian Hamilton landed on the Gallipoli peninsula. The main thrust of the attack focused on five points -- beaches named S, V, W, X and Y -- along the tip of the peninsula, Cape Helles. The 29th Division of the British army carried out these landings with the support of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Army Corps (Anzac).

Unfortunately, however, they did not lead to decisive gains or the passage of the fleet through the Dardanelles, and several months of intensive trench warfare issued. On 6 August an attempt to break the deadlock was made by landing fresh forces at Suvla Bay while forces simultaneously tried to break out from Anzac. This new attack was not successful. Hamilton was removed from his command on 15 October and General Sir Charles Monro, who replaced Hamilton, soon recommended the evacuation from the peninsula. After several months' consideration, the

final decision was made and the evacuation took place in two stages on 18-19 December and 8-9 January 1916. The campaign ended as a disastrous defeat of the British military forces.

The controversy on the reasons of the failure was initiated by the appointment of a royal commission in August 1916 to find out why the campaign ended up as failure. The Dardanelles commission sat in nearly over a year and produced two reports on the campaign. The reports criticized the role of three leading figures - Winston Churchill, Lord Kitchener and Ian Hamilton -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campaign. In sum, Churchill hastily organized the campaign, Kitchener did not adequately provide the military resources which the Expeditionary Forces required, and Hamilton commanded his junior generals with too laissez-faire leadership. However, in my opinion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defeat was those three figures' erroneous attitude toward the enemy, the army of the Ottoman Empire. In other words, they commonly had some arrogant tendencies, the so-called 'imperialistic Orientalism' toward the Ottoman empire, which underestimated the military capability of the Ottoman army.

Key Words : Gallipoli Campaign, Dardanelles, Istanbul, Winston Churchill, Horatio Kitchener, Ian Hamilton, Anzac Corps, Ottoman Empire, Liman von Sanders, Mustafa Kemal

